

세계적 영화촬영소와 영화산업 발전 협력

아바타 등 작품 촬영한 뉴질랜드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 대표단, 전주 방문·협력사업 논의

전주시가 '아바타'와 '몰란', '메가로돈' 등의 영화가 촬영된 세계적인 영화촬영소인 뉴질랜드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와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29일 유성환 대표를 비롯한 뉴질랜드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Kumeu Film Studios) 방문단이 전주시와의 협력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 대표단의 전주 방문은 지난 5월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뉴질랜드를 방문해 유성환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 대표와 전주시 영화·영상산업 활성화를 논의한 후 업무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으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 대표단은 이날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을 만나 전주시 영화·영상산업의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협력사업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주시가 '아바타'와 '몰란', '메가로돈' 등의 영화가 촬영된 세계적인 영화촬영소인 뉴질랜드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와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표단은 또 전주시 내 영화 관련 대학과 상립동 전주영화종합촬영소, 고사동 전주영화제작소 등을 차례로 방문해 전주시의 영화·영상 관련 인프라를 확인하고, 전주시에 필요한 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시는 향후에도 영화·영상을 기반으

로 한 경제효과 창출을 위해 △영화편 드 조성 및 투자를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영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영화산업 도시, 전주 브랜딩 등 산업과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글로벌시장 공략 및 지역 영

화산업 육성을 위해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와 같은 글로벌 영화촬영소와 영화제작사, OTT 플랫폼 기업 등과도 꾸준한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우리 의회의 뉴질랜드 방문이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의 전주 방문 계기로 이어지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향후 전주시와 쿠메우의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통해 양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는 전중국 제영화제가 열리는 도시이자 기생충 등 다양한 영화가 촬영되는 대한민국 대표 영화의 도시"라며 "이번 방문을 기점으로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쌓고 전주시가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글로벌시장을 공략하는 한국 영상콘텐츠 수출 전진기지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말꺼야'

전주시 완산구청 임경아 주무관, 여행에세이 출간

임경아 전주시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주무관이 여행의 추억과 행복을 찾아 여행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여행에세이를 펴냈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임 주무관은 최근 '베리골드'라는 작가명으로 여행에세이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말꺼야'를 출간하며 작가로 변신했다.

임 주무관은 지난 2020년 브런치 작가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최근 출판사 부크크를 통해 △호주로의 교환학생 △필리핀·뉴욕·캐나다로의 어학연수를 떠나 겪은 에피소드 △행복을 찾아 여행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여행에세이를 출간했다.

이 책에는 △호주 캔버라대학교 교환학생 시절 학교 안에서 토끼와 캥거루를 마주친 일 △다시 어학연수를 떠난 필리핀 스파르타 어학원에서 1평 남짓 작은 방에서 1대1 영어 수업을 들은 기억 등 작가의 경험이 녹여있다.

특히 이 책에는 작가가 여행하면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담겨있다.

이번에 출간된 에세이에는 스타 트야코리아 소속 작가인 '썸머그린'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책의 주인공인 '베리골드'가 여행하는



여행에세이 책 표지

모습을 캐릭터화한 일러스트가 삽화로 수록돼 더욱 흥미를 주고 있다.

임 주무관은 "이 책의 첫 장을 함께할 때는 누구나 서투르고 어설프겠지만, 마지막 장을 덮을 때는 마치 긴 여행을 끝마친 후처럼 '나'에 대해 한 단계 더 알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경아 전주시장은 "이번 에세이 출간은 평범한 한 개인의 자질이 전주시 공무원들의 뛰어난 국제적 마인드를 시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문화공연·표창 수여 등 진행

전주를 천사도시로 만드는 데 앞장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앞으로 더욱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기로 다짐했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에서는 29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70여 개 봉사단체 회원 등 자원봉사자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9회 전주시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원봉사자 대회는 UN이 정한 '세계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을 기념해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원봉사 현장의

최일선에서 봉사를 실천해온 자원봉사단체와 봉사자에 각각 전주시장 표창과 전주시의회 의장 표창, 전라북도 교육감 표창,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표창 등 많은 상이 수여됐다.

수상자는 전주시역 곳곳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해온 봉사자 117명과 자원봉사 수요처 및 자원봉사 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온 9개 기관·단체이다.

특히 올해 시상식에서는 자원봉사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등 타의 모범을 보인 개인 4명과 1개 단체, 1개 기업이 ' 으뜸봉사상'으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이날 자원봉사자대회에서



29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70여 개 봉사단체 회원 등 자원봉사자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9회 전주시자원봉사자 대회'가 열렸다.

는 △자원봉사 박람회 △탄소중립 캠페인 △문화공연 △자원봉사 사례 발표 △자원봉사자 한마당도 펼쳐졌다. 이 가운데 자원봉사 사례발표 시간에는 봉사자들이 '전주, 나의 자원봉사를 말한다'를 주제로 자원봉사 사례 4편을 발표해 참가자들과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또한 자원봉사 박람회에서는 특화교

육을 수료한 전문봉사단이 △뷰티플러스 △염기 건강 △정리·수납 등의 체험부스를 운영했으며, '나눠드림 협동조합'은 환경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다양한 제품들과 작은 플라스틱 새활용품을 전시하는 등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김옥기 기자



취약계층 독거노인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 후원

전주시전·서중 'Happy 아이 Net 나눔봉사단', 손뜨개 목도리 등 전달

전주시전중학교와 전주시중학교 학생들이 구성된 'Happy 아이 Net(해피아이넷) 나눔봉사단'은 29일 전주시청을 찾아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손뜨개 목도리와 수제 섬유탈취제 등 후원 물품 100개를 기부했다.

'Happy 아이 Net'은 교육복지우선지원 중점학교와 사회복지 서비스 유관 기관 등이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사업을 구축하는 협력체로,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껴 삶의 주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효자동 지역 'Happy 아이 Net 나눔봉사단'으로 활동 중인 전주시전중학교와 전주시중학교 학생들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취약계층 노인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직접 손뜨개 목도리와 천연 섬유탈취제 등 후원 물품을 만들어 기부하게 됐다.

시는 학생들이 기부한 물품을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취약계층 독거노인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박형배·이보순 전주시의원, 전주시자원봉사센터로부터 감사패 받아

전주시의회 박형배(효자5동)·이보순(비례대표) 의원이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29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제19회 전주시자원봉사

자대회에서 전주시 자원봉사 문화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인 노력을 한 공로를 인정해 박 의원과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원들은 "전주시를 천사도시로 만

든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정적으로 봉사해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김영태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